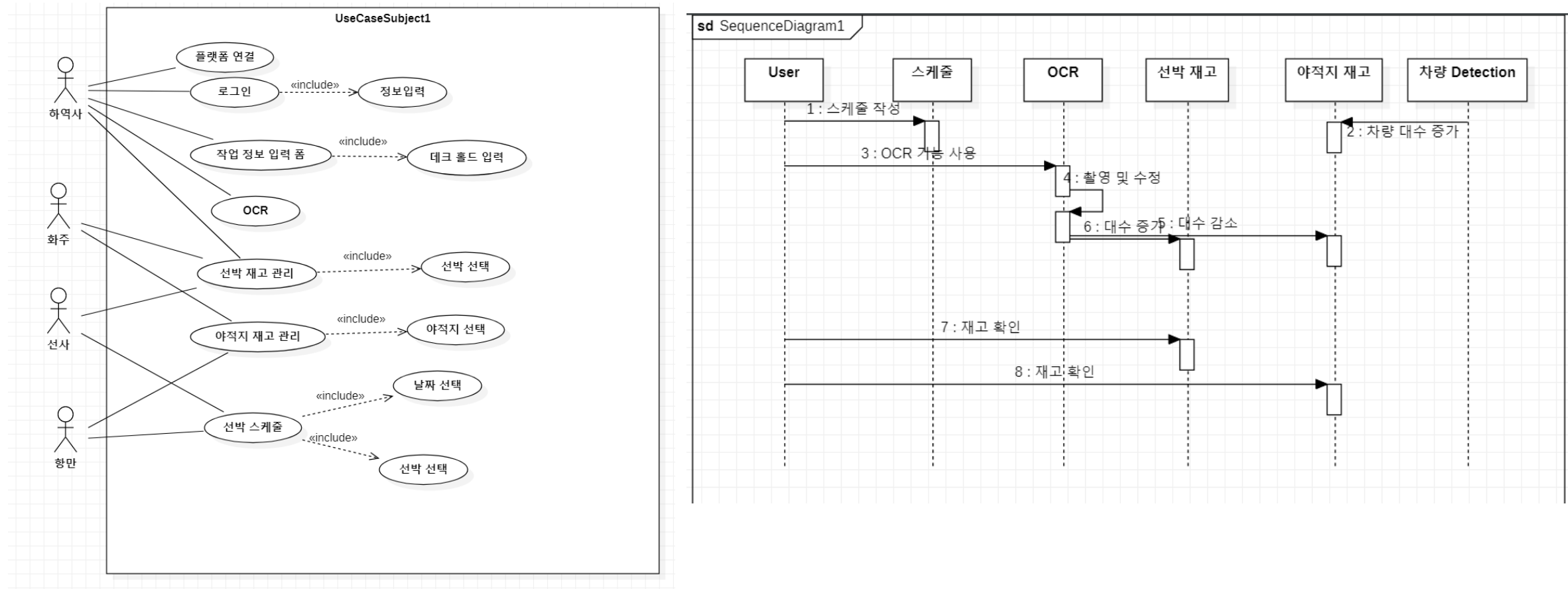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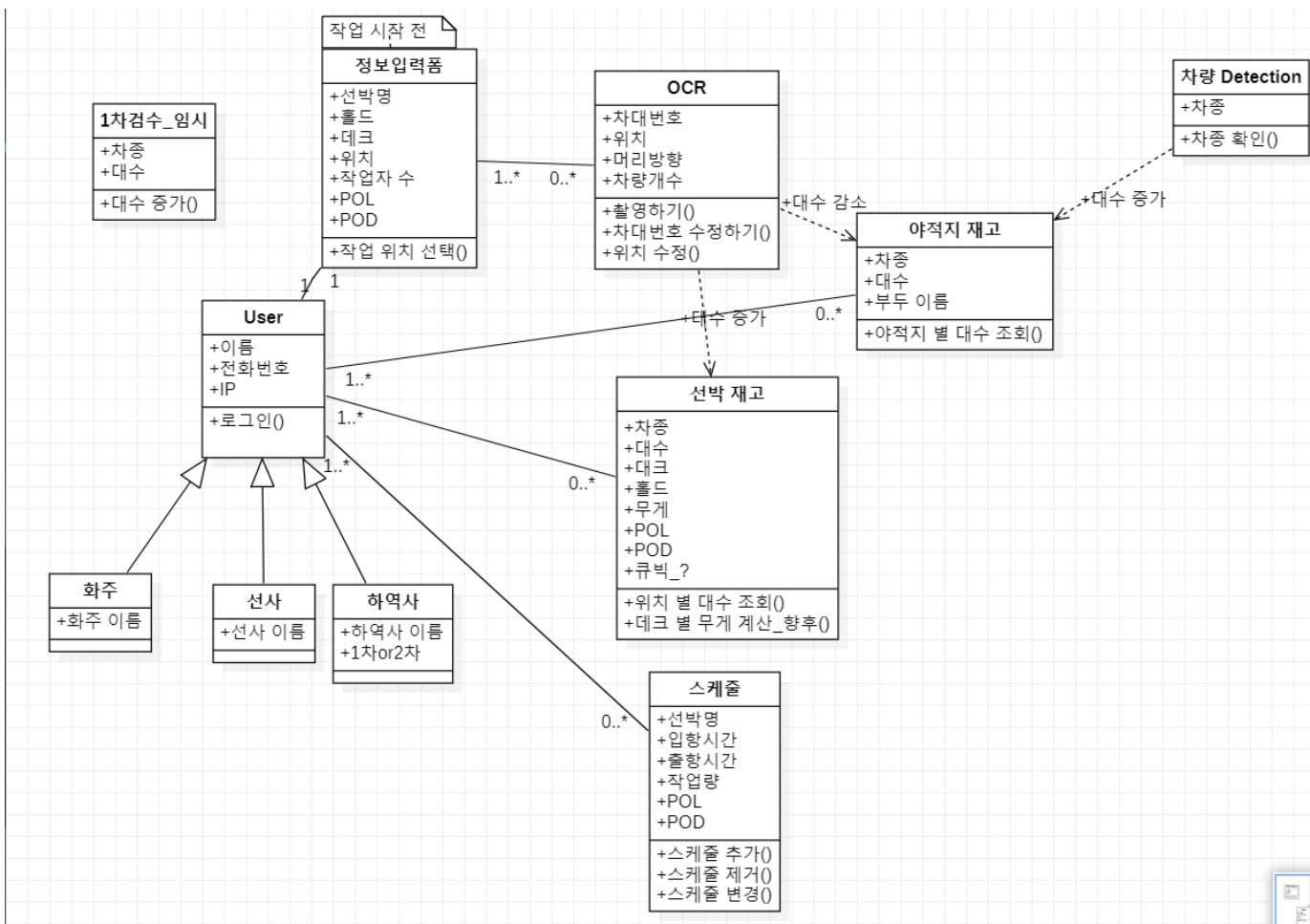
팩토리팀 기술멘토링

날짜 11월 3일 수요일 9시~10시
참여인원: 팀원 전원참석 [이희승(팀장), 이승희, 이아리, 전성호]
멘토님: 탁근선 멘토님

1. 제품/서비스의 주요 기능(시나리오, 유스케이스, 스토리보드)



1. 제품/서비스의 주요 기능(시나리오, 유스케이스, 스토리보드)



2. 기술적 제약사항 및 요구조건 정의

1. 좋은 AWS 사용 불가능

예상되는 문제로는 OCR로 촬영한 사진 중 garbage data들이 어떻게 처리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batch를 돌리거나 클론에 돌려서 주기적인 삭제가 가능합니다.

2. DB에 저장된 내용을 엑셀로 내보내는 방법들

DB에 저장된 내용을 엑셀로 내보낼 때 사용하는 보고서 툴들이 있습니다. 예로는 클립 소프트가 있고, 이는 샘플을 만들 수 있으며 소스도 있어 트라이얼 버전을 먼저 사용 고려 중입니다.

3. 다른 AI 서비스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현황 궁금증
아쉽게도 답변은 받지 못하였으나 대체로 Flask만 사용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현재 남은 기간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스프링으로 굳이 변경하지 말라는 멘토님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팀원들 내에 리엑트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어려울 수 있으니 일단은 검토만이라도 진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4. 대시보드의 완성은?

대시보드 또한 디자인해야 하지만 필요인재 부재로 기술적 제약이 있어 먼저 유의미한 데이터 추출 후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지 구상을 하여 디자이너에게 외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조언으로 대시보드는 최대한 가시적,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미적으로 예뻐야 사용자가 증가하고, 사용자가 증가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에 디자이너는 디자인 뿐만 아니라 기획 또한 가능한 사람을 찾아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구조건은 디자인과 기획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 입니다.

5. 엑셀 품의 구체성?

엑셀 폼 안에서 차량 종류별 도형을 그린 것은 도형의 모양이 아닌 색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은 서로 다른 모형으로 차종을 표시했다면 이제는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주기만 한다면 더 쉽게 차종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도형 모양은 검수원 임의로 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직 구상만 한 상태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이 해결책을 구현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6. 이전의 마리아 DB vs MySQL 에 관한 문제

마리아 DB를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이전에 받았었으나 아직 만들지 못한 상태일 뿐더러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진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멘토님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진행을 할 것이라면 빠르게 변경하고, 아니라면 프로토타입까지는 MySQL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7. OCR 변경

OCR을 기존에 사용했던 Tesseract에서 나노넷으로 변경할 생각입니다. 성능은 비슷하지만 미래 지속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안정성이나 테이블 디텍션 부분에서 나노넷이 더 괜찮다고 판단하여 나노넷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